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‘15. 2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뉴스1 “삼척포기하고 영덕에 신규원전 4기
건설”(2.22), 이투뉴스 “경북 영덕에 원전 4기
신규 건설”(2.16) 등 기사에 대한 입장

1. 기사 내용

- 정부는 ‘29년까지 영덕에 1,500MW급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한다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수립
- 당초, 삼척과 영덕에 각각 2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세웠으나, 삼척 지역의 반대가 심해지면서 영덕지역에 짓기로 함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산업부는 ‘14년부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, 현재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작업 중
-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절차상 원전, 석탄, LNG 등의 발전설비 계획은 중장기 수요 전망이 확정된 이후 수립 가능한 사항
 - * 설비계획은 수요 확정이후, 예비율·전원믹스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
- 따라서, 신규원전의 입지, 물량 등 구체적인 설비계획은 실무 소위원회를 통해 아직 논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

※ 관련 문의 : 전력산업과 이원주 과장, 김상우 사무관(044-203-5242)